

## 감정이 지나치면 병이 되고

신좌섭(의사, 한국의학사)

### 장부 일체를 주관하는 정(精)·기(氣)·신(神)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도가(道家)의 3요소인 정(精)·기(氣)·신(神)이 장부(臟府) 일체를 주관한다고 하였다(그림 1). 그가 말하는 정·기·신을 오늘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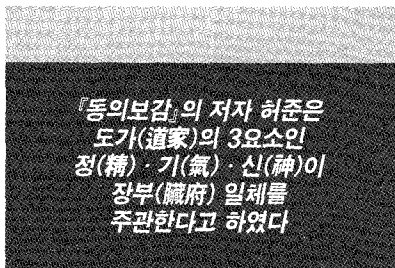
개념으로 풀자면 정은 정력, 기는 감정, 신은 정신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동원(『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등에 의하면, 요

컨대 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적 측면으로서 개체보존을 위한 생식활동에 관여한다고 하였고, 이에 비한다면 기는 정보다는 고차적이며 몸의 생리적인 운용을 담당하는 요소이며, 신은 정보다도 더욱 고차적인 것으로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담당한다.

이에 따르면, 정신병은 신(神)에 속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의보감』의 「정」문에서는 정력의 이상에 의한 유정(遺精), 몽설(夢

泄) 등의 질병을 다루고 있으며, 「기」문에서는 기울(氣鬱), 기부족, 기절(氣絶) 등의 질병을 다루고 있고, 「신」문에서는 전광(癲狂) 등의 정신병을 다루고 있다. 「신」문에서 다루어지는 질병들 즉, 신병(神病)에는 일종의 불안신경증인 정충과



경계(驚悸), 건망증, 가슴이 벌렁거리며 몹시 뛰는 증상, 오늘날의 간질에 해당하는 전간(癲癇), 오늘날의 조울증에 해당하는 전광(癲狂),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일종의 무기력증이라 할 수 있는 탈영(脫營)과 실정(失精) 등이 있다.

그밖에도 『동의보감』은 정신병으로서 사수(邪祟)를 소개하고 있다. 사수란 귀신 썩었다는 뜻으로서 『동의보감』의 잡병편 사수문은 이에 해당하는 여러 증상과 치료법을 다루고 있으며, 사수의 증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수에 들린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고 웃고 노래하고 시를 읊기도

하고 개울에 앉아 졸거나 더러운 것을 주워 먹기도 하며, 옷을 다 벗고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보통 사람은 가지 못하는 높은 곳과 험한 곳을 평지처럼 다닌다. 또 괜히 성내고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전증(顛症)과 유사하나 전증은 아니다”고 하였다.

앞의 사수가 조울증에 해당한다면 사수는 요즘 말하는 정신분열증에 해당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다가 가위에 잘 눌리고 꿈에 귀신과 성교를 하며 열도 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나 앞으로 있을 화와 복을 알아맞히기도 하고 남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것도 사수의 증상이다.

그러나 동의보감은 귀신 때문에 이 병이 생긴다는 설을 부정하고, 대신에 기혈이 몹시 허하고 정(精)과 신(神)이 부족하거나 담화(痰火)의 작용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놀람, 무서움의 7정이 균형을 잃으면 몸 내부에서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감정이 지나치면 병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 정신병의 치료

이에 따라 신병(神病)을 치료하는 데에는 원인이 되는 감정이 관련을 맺고 있는 오장을 치료함으로써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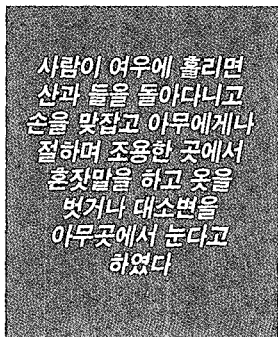
즉, 간에서는 화내는 감정이, 심장에서 는 기쁨이, 비장에서는 생각, 폐에서는 근심이, 신장에서는 무서움이 생겨나므로 각각의 감정이 지나치면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처방을 하였다.

한편, ‘귀신들린’ 사수를 치료하는 약으로는 태을신정단, 회춘벽사단, 이자견살귀원 등을 썼다. 이것들은 주사(朱砂)와 옹황

등의 약재를 써서 만든 것으로서 귀신을 죽이거나 혹은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다.

이밖에도 나무의 구멍이나 참대를 잘라낸 그루터기에 고인 빗물을 환자에게 마시게 하면 사귀의 기운으로 미친 것이 치료된다고 믿었다.

또 여우에게 홀리면 여우고기를 먹인다고 하였으며, 여우의 가죽이나 꼬 끝의 검은 곳을 떼어낸 후 가루를 내어 술에 타 마셔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사람이 전설



圖府藏形身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그림 1).  
정신병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되었던 부적(그림 2).

에 흔히 등장하는 여우에 홀리면 산과 들을 막 돌아다니고 손을 맞잡고 아무에게나 절을 하며 조용한 곳에서 혼잣말을 하고 옷을 벗거나 대소변을 아무 곳에서나 누다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이 이상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구타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구타법의 풍습은 폭력을 가함으로써 귀신을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신체를 구타해서 고통을 주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 병이 쾌유한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 반드시 복숭아나무 가지, 특히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사용했는데, 복숭아는 오목(五木)의 정(精)으로서 사기(邪氣)를 누르고 백귀(百鬼)를 쫓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복숭아 나무는 봄별의 정기이기 때문에 늦봄 잎이 돌아나기 전에 꽃을 피운다. 따라서 다른 나무보다 생기가 충만해 있고, 귀신을 물리치는 힘도 왕성하다. 특히 동남향으로 뻗은 가지는 가장 많은 양기를 받기 때문에 더욱 효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무녀와 술가(術家)를 고용하여 곡물, 금전, 반물을 차려놓고 1주일, 길게는 3주일에 걸쳐 북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한편 복숭아나무 가지로 신체 각 부위를

아무데나 가리지 않고 때려 환자가 비명을 지르면 악마가 떠난다고 하여 실신상태에 이르기까지 구타하기도 하였다.

한편 “병이 났을 때 귀신은 부적을 싫어하므로 부적을 복용한다”는 생각에서 <그림 2>와 같은 부적을 태워 그 재를 마시기도 하였다. 부적을 복용해서 병귀를 내쫓으려는 생각은 약석을 복용하는 신앙과 일맥상통한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고 복용하는 것 중에는 대부분이 그 음식물이나 혹은 약물에 의해서 몸 속의 병귀를 내쫓으려는 술책이다.

부적은 대개 황색종이에 주사(朱砂)로 썼다.

주사로 부적을 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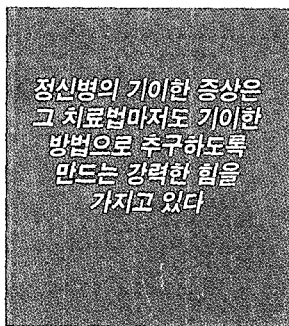
그 붉은 색이 귀신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적색은 불의 상징이고 양(陽)을 나타내므로 예부터 나쁜 기운을 쫓는 위력이 있다고 믿었다. 특히 악귀는 빨간 것을 싫어한다는 신앙에서 악귀를 쫓아내는 부적에 주묵(朱墨)을 사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의 치료를 위해 환자가 병굿을 받고 무당이 되기도 하였다.

괴이한 행동을 하고 앞으로 있을 화와 복을 알아 맞히기도 하고 남의 생각을 꿰

뚫어 보는 등의 정신병 증상은 ‘신들림’의 징조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환자는 무당이 됨으로써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정신병은 입무(入巫)의 병이었던 것인데, 실제로 무당이 됨으로써 정신병을 치료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70년대 우리 나라 정신의학자들의 한 조사에 의하면 당시까지도 민간에서 정신병의 주된 치료법은 다음과 같았다.

즉, ‘굿을 한다, 경을 읽는다, 부적을 붙인다, 부적을 태워서 삶아 먹는다, 묘 자리를 옮긴다, 집터를 옮긴다, 밥을 해서 버린다, 동쪽으로 뺀을 복숭아, 뽕

나무, 버들가지로 환자를 때린다, 가마니 혹은 바구니에 환자를 넣고서 천장에 매달아 돌린다’는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70년대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굿을 하거나 경을 읽고 구타하는 방법이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정신병의 기이한 증상은 그 치료법마저도 기이한 방법으로 추구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